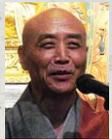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2014년 법왕사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엄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1년간 3회에 걸쳐 백고좌대설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첫번째 법회인 제26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19일차
2월 3일
특별 법문
현웅스님
서울 육조사 선원장



●21일차
2월 5일
특별 법문
적연스님
봉녕사 율원장



●26일차
2월 10일
특별 법문
각현스님
연꽃마을 대표



●100일차
4월 25일
회향 법회
무관스님
해인사 홍재암

◆ 일시 : 2014년 1월 16일 ~ 4월 25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법사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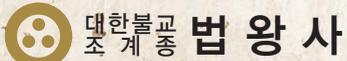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14일차	1월 29일 ㉞	설날 연휴		21일차	2월 5일 ㉞	적연스님 (비구니)	봉녕사 율원장
15일차	1월 30일 ㉞	설날 연휴		22일차	2월 6일 ㉞	정운스님 (비구니)	동국대 교수
16일차	1월 31일 ㉞	설날 연휴		23일차	2월 7일 ㉞	원일스님	진명사 주지
17일차	2월 1일 ㉞	설날 연휴		24일차	2월 8일 ㉞	시명스님	청은정사 주지
18일차	2월 2일 ㉞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25일차	2월 9일 ㉞		삼천포 선상방생 법회
19일차	2월 3일 ㉞	현웅스님	서울 육조사 선원장	26일차	2월 10일 ㉞	각현스님	연꽃마을 대표
20일차	2월 4일 ㉞	묘각스님	전남 묘현사 주지	27일차	2월 11일 ㉞	우관스님 (비구니)	감은사 주지

제27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 2014년 5월 13일(화)
회향 : 2014년 8월 20일(수)

제28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 2014년 9월 14일(일)
회향 : 2014년 12월 22일(월)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4. 2 | Vol. 237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화엄신중 천일기도 입재

법왕사에서는 새해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음력 12월 15일) 입재하여 2016년 10월 10일(음력 9월 10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또한 매월 보름날 오후 2시에는 화엄경 약찬게 49독 기도를 봉행하고, 천일법회 때마다 천주를 만들 30알의 염주를 드립니다. 천일기도비는 입재시 10만원, 매월 보름마다 30개월 동안 3만원씩입니다. 또한 천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들에게는 천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천일의 발원

삼일수심(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담물(百年食物)은 일조진(一朝塵)이니라.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와 같고
백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느니라.

자경문의 말씀을 되새기며 몸 낮추는 계절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이 경을 믿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면
초발심에 문득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불국토의 바다에
편히 앉게 되나니 이를 일러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하셨습니다.
걸음, 걸음들이 더디기만 하여 급한 마음 밭에 어리석음의
씨앗을 심지 않도록 화장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지켜주시기를 발원합니다.

탐욕심이 지은 업으로 뒤틀려 어긋나 악연의 고리에 걸려 든
인연들이 자재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어긋남의
고리를 끊고 선한 인연되어 화락하게 하옵기를 발원합니다.

여기, 법왕사 불자들이 천일의 눈을 세웠습니다.
신심깊은 불자들의 한마음 한마음이 모여 천일의 눈이
완성되는 날 소구소원하신 모든 발원이 성취되어
너도 관세음, 나도 관세음,
우리 모두 관세음 되게 하여 지이다.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음 12월 15일)
- 회 향 :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음 9월 10일)
- 천일법회 : 합동재일은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2시 본당 2층에서 약찬게 49독 후 축원
- 천일염주 : 천일법회 시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 도 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초하루 3만원(30개월)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들에게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Vol. 237호



- 04 깨침의 향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라 · 원공당 정무 대중사
- 08 비술산방
새 시대의 새로운 신행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마음 다스리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
장엄한 단청, 위엄과 권위의 상징 · 조명래
- 20 명찰순례
우리나라 으뜸 사찰 계룡산 감사
- 24 특집 | 불교와 세시풍속
입춘과 대보름, 그리고 삼재풀이
- 26 법왕사소식
- 28 법왕사게시판
- 30 해오름소식
- 31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 불기 2558(서기 2014)년 2월 01일 발행 | 통권 237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유, 대일, 강선옥, 대혜궁, 묘향심, 반야화 | 기획·제작·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발원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라

원공당 정무 대종사



부처님은 “은혜를 아는
자는 응당 최상의 보리심을
내게 되며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최상의 보리심을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즉 이 세상을 자기 혼자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은혜(恩惠)를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관계를 일러 우리 불교에서는 연기법(緣起法), 인연법(因緣法)이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남들이 나에게 보여준 따뜻한 관심(觀心)과 격려(激勵), 걱정과 꾸중과 같은 사소한 일상들이 모두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것이 지은(知恩)이며, 이를 잊지 않고 갚는 것이 보은(報恩)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부처님께서서도 사람으로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네 가지 은혜 즉, 사은(四恩)에 대해 『대승본심지관경』에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은혜요, 둘째는 중생의 은혜요, 셋째는 국왕의 은혜요, 넷째는 삼보(三寶)의 은혜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며 보살행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은혜를 아는 자는 응당 최상의 보리심을 내게 되며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최상의 보리심을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란 ‘나’를 낳고 길러 주신 양친의 은혜를 말합니다.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란 말과 같이 바로 부모의 은혜는 효로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생(前生)에 부부의 연을 맺고 평생을 살았다고 한들 금생(今生)에 옷깃 한번 스치는 인연에 불과하다 하였는데 하물며 부모, 자식의 연을 맺는다는 것은 실로 다생의

로 맺어진 좋은 인연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물질만능주의에 휩싸이다 보니 가장 순수하고 지극해야 할 부모자식간의 애정마저 물질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리다 보니 자식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또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해(害)하는 일이 생겨나고 심지어 모시기 싫다고 나이 많은 부모를 버리거나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는 참사가 일어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의 10가지 크나큰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이를 잉태하여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은혜입니다. 아이를 갖기까지 여러 생에 걸친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 무거운 몸을 조심하며 열 달을 지켜주신 은혜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둘째, 낳으실 때 고통받으신 은혜입니다. 출산의 고통과 두려움은 아이를 낳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셋째, 자식을 낳고서야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신 은혜입니다. 몸과 마음이 까무러칠 듯 근심과 고통에 쌓였다가 낳은 아이가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시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넷째, 쓴 것은 삼키고 단것은 뱉어 먹이신 은혜입니다. 다섯째, 마른 자리에 아이를 눕히고 진자리에 당신은 누우신 은혜입니다. 여섯째,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입니다. 일곱째, 깨끗하지 못한 것을 씻어주신 은혜입니다. 여덟째, 자식이 멀리 나갔을 때 걱정하

시는 은혜입니다. 아홉째,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나쁜 업(業)을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누가 악업(惡業)을 지어 지옥에 가기를 원하리요 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보다 더한 곳도 가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열번째, 자식 사랑으로 애태우시는 은혜입니다. 백살의 어머니가 여든 살 된 자식 걱정해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이 자식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범인이 천지귀신을 섬기는 것이 양친을 모시는 것만 못하니 양친이 곧 최고의 신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최고의 신 같이 모시고 궁극적으로 불법에 귀의하여 고통에서 해탈하고 대자유(大自由)를 성취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생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의 은혜입니다. 특히 모든 중생은 여러 생에 걸쳐 어느 때인가 부모가 된 적이 있었을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선인이요,
 보살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무엇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항상
 조심하고 이웃을 배려하
 면서 낭비하지 않고 근검
 절약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것이니 중생의 은혜는 곧 부모의 은혜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여러 사람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에도, 한 벌의 옷에도 많은 사람들의 피땀어린 노고가 서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바로 중생의 은혜, 이웃의 고마움을 갚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은 국왕의 은혜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국가, 즉 나라의 은혜입니다. 국가는 자기 국민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국민들이 복락(福樂)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때문에 나라가 잘 살아야 백성이 잘 살 수 있고, 나라의 힘이 강해야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삼보(三寶)의 은혜입니다. 삼보란 불(佛), 법(法), 승(僧)을 말합니다. 진리를 깨달아 고통과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야말로 어떤 은혜보다 높고 큰 은혜입니다. 또한 중생은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건강과 안온함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 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생(多生)으로 지은 좋은 인연에 의해 맺어진 바로 부모, 중생, 국왕, 삼보의 네 가지 은혜, 사은(四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선인이요, 보살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무엇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항상 조심하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낭비하지 않고 근검절약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주는 한 집안이고, 중생은 한 몸이니 무릇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진실된 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신행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나 중생들에 모여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었고, 불교는 그에 대해 적절히 「응답」해 왔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불교신행은 시대정신을 계도(啓導)해야 할 사상적 당위(當爲)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만약 혼탁한 시대의 조류를 방관하거나, 이끌려간다면 불교는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성불(成佛)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제시하는 성불에 이르는 과정은 다양합니다. 즉 중생의 근거(根機)에 따른 서로 다른 수도의 방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불교는 참선(參禪), 간경(看經), 염불(念佛), 기도(祈禱), 만행(萬行), 참회(懺悔) 등의 다양한 수도방법을 펼쳐왔습니다. 물론 종파적(宗派的)인 기준에서 우열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이 모든 방법이 궁극적 목표에 이르는 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행방편 가운데서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떤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나날이 풍족해지는 물질적 조건에 반비례해서 그 물질이 채워줄 수 없는 정신적 공허감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같은 문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항상 있어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소산이 바로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종교는 그 소임을 다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불교의 신행은 시대정신의 소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언제



방편을 취하든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현대적 개념으로 불교신행을 새롭게 정립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단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인과의 질서를 믿는 일입니다(아함(阿含)의 법(法)). 우주는 끝없는 인과의 순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에 이르기까지 업보(業報)는 관통하고 있습니다. 신타래 같은 인과의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생명의 실존적(實存的) 상황입니다. 그러니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주변상황에 대하여 보다 착한 인연을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현상세계의 공성(空性)을 체득(體得)하는 일입니다(반야공관(般若空觀)). 사물은 무자성(無自性)입니다. 왜냐하면 현상세계는 연기적(緣起的)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인 것인데 중생은 이 공의 세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며, 삼공(三空)의 바다를 부정합니다. 물론 이 공이 허무적멸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단·상(斷·常)의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중도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격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일(유식·여래장(唯識·如來藏))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성(佛性)을 갖춘 존재입니다. 불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모든 생명은 동질적입니다. 문제는 그 불성을 자각하는 삶이냐, 아니면 (나)를 떠난 저 먼 곳에 해탈이 있다는 외부 지향적 삶을 사느냐에 하는 차

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중생은 떠나없이 그 가능성을 상실한 채 덧없는 윤회유전을 거듭하는 실향민들입니다. 불교신행은 그것을 일깨워 주어야 하며, 또 부처로서의 자각을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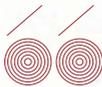
넷째,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삶의 구현입니다(화엄의 육상원융(華嚴의 六相圓融)). 조화롭게 살아가는 표본은 바로 자연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조화의 근본입니다. 보살의 이상은 바로 그 조화의 회복을 도모하는 나침반입니다. 다섯째, 생명의 실상을 통찰하고 걸림 없는 삶을 구현하는 일입니다(『대승기신론』의 四種信心). 생명의 본질을 진여(眞如)라고 합니다. 만물의 원천이며, 생명의 귀의처입니다. 깨달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무애(無碍), 자재(自在), 불이(不二) 등으로 구체화됩니다. 결국 삼보(三寶)를 믿는 행위는 이타적 기복성(祈福性)이 아니라, 스스로의 해탈을 도모하고 못 생명들을 안락으로 이끈다는 보살행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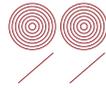
오늘날 불교신행이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의 신행단계를 골고루 갖추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불교신행의 정립을 위해서 우선 그릇된 불교신행을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어떤 신행 행위도 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복적, 주술적 신행은 참된 불교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 불자들이 새시대를 살아가면서 점검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음 다스리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마음이 만약 눈과 물질 둘을 겪었다면 물질과
 자체가 섞이어 어지러울 것이고 둘을 겪하지
 않았다면 아는 것도 아니요 모르는 것도 아니어서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으며 중간에 있다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능엄경>



아이가 다섯 살 무렵이면 부모 손에 이끌려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중·고와 대학에 이르는 16년을 틀에 박힌 제도 하에서 배워야 한다. 또 학업 중에는 사교육을 통한 학원에서 배우고, 더러는 유학까지 가서 배우는 데 걸리는 세월만 해도 어림잡아 20년 이상이 된다. 이 기간은 전적으로 돈과 열정과 시간이 투자되는 기나긴 여정이다.

이런 교육은 참교육이 목표로 하는, 즉 순수학문 탐구로써 모두가 잘 사는 이상사회 실현을 향한 과제를 두고 실천·연구한다거

나 부단한 인격도야(人格陶冶)에 힘쓰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어찌하면 좀 더 좋은 곳에 취직해서 출세·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며 부귀·명성을 얻어 일신(一身)의 안락만을 위하고 누리고자 하는 '영달을 바라는 편한 삶'에 기초한 '교육열'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부모·학생이 얼마나 되겠는가.

교육의 이상(理想)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正道 : 바른 길) 실현의 가치관은, 기억 속의 관념으로만 있을 뿐, 배운대로 '원칙이 가지는 바른 길'을 향한 의지가 설 자리를 잃어버

린 데는, 물론 치열한 경쟁구도 사회가 부추기면서 그 힘에 휩쓸리며 부화뇌동하는 심리로, 남에게 뒤질세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상황과 제도며 관습 등 구조적으로 얽혀진 폐단도 있겠지만 그러한 외적인 이유보다는 개개인이 사물이 지닌 허실(虛實)을 바로 보지 못하는 습관적 인식의 문제이다.

즉 지식의 역량(배워 앎)을 과신한 나머지, 세속에 찌들어 탁하고 어지러운 심신을 닦아 맑게 하는 데는 소홀하여, 것처럼 긴 세월을 두고 배워 듣고 익힌 지식이건만 겨우 제 한 몸 명예·이익을 좇는 최고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다.

● ● 실천 없는 지식은 허구

'아는 게 힘이다' 라고 하지만 배운 만큼 빠르게 몸소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관념의 찌꺼기로, 머리에 채워넣은 메마른 지식일 뿐이다.

'눈썹 밑에 있는 찢어진 두 눈과 뚫린 귀로써 순전히 외부로부터 보고 들은 기억 및 인식에 의한 지식'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법의 실상에서, 식(識)을 포함한 온갖 사물이 본래 당체 없고 실제 없음을 분석 규명하고 밝히어 마음의 망령됨, 마음의 허망함에서 짓고 조작하는 것이 생각하는 인식이며 앎을 기억하는 지식임을, 미망에 덮인 중생의 소견으로서 도저히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법의 실상'을 두고, 석존은 불지견(佛

知見)으로 아시고는 말법 중생을 위해 자상하고도 심도 있게 다루어 그 이치를 날날이 파헤친 부가사의(不可思議)의 한 『능엄경』이 전하는 '법의 실상'을 들어보자.

『대불정수능엄경』의 이름으로 불리는 능엄경은 경전의 성립 배경부터가 자못 흥미로우며, 사물이 지닌 실체(본질)를 여실히 알고 깊은 통찰로써 꿰뚫는 직관지(直觀知)의 선도리(禪道理)로서 설하며 "인연 따라 짓고 이루어진 것은 그 무엇도 '나(자아)' 또는 '내것' 이라고 할, 변치 않은 실다움이 없음"을 거듭거듭 간절히 밝힘을 주 내용으로 전개되는 대승경전이다.

생사 그물에 얽혀진 가엾은 중생을 구하려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아난존자가 묻고, 부처님이 영긴 실타래 풀 듯 의혹을 풀어가는 형식을 취한다.

세속 인연으로 아난은 가비라국 정반왕의 뒤를 이은 백반왕의 아들이니 부처님과 종제(從弟) 사이인 사촌동생이기도 하다.

아난은 출가 후 부처님의 충직한 시자(侍者)로서 평생을 '입속의 혀'처럼 부처님을 모셨지만, 어깨 너머로 보고 들은 지식의 기억으로만 가득 채운 때문에 정작 깨달음에는 들지 못하다가 '많이 보고 들어 배운 앞에 치우침'을 크게 뉘우치고는 곧 발심(發心)하여 불망지(不忘知)를 얻는다. 다문제일(多聞第一)의 십대(十代)제자로 불리며, 부처님 열반 후에 이루어진 경전 결집(結集)은, 부처님 가르침을 모두 기억하는 거의 입을 통해 송출(誦出)되었다.

마음이 만약 눈과 물질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이 '눈과 물질' 둘을 결합 것이냐, 결합하지 않은 것이냐. 만약 둘을 결합했다면 물질과 자체가 섞이어 어지러울 것이며, 물질은 자체의 알음알이가 아니므로 서로 적어 되어 둘로 갈라설 것이니 어떻게 중간이 있겠느냐. 둘을 결합하지 않았다면 아는 것도 아니요 모르는 것도 아니어서 마음이라는 자체의 성질이 없을 것이니 중간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겠느냐. 그러므로 마음은 안에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으며 중간에 있다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능엄경>

단 한 순간도 쉽없이 분주해 마구 들쭉시고 헤매이며 헛되이 쪼다니는 이 마음을 다잡아 스스로 제어하려는 의지적 노력 없이, 밖에서 보고 듣고 배워 아는 학문·지식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의 문은 열 수도 없거니와 현묘(玄妙)한 지혜가 갖든 참마음의 실상에 접근할 수조차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 ●
심신의 조화로움이 건강한 삶

넓히기로 하자면 우주 허공간에 가득 하고도 남는 것이 마음이요, 좁히기로 하자면 바늘 하나 꽃을 자리 없이 웅색한 것이 또한 우리 마음이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마음)도 건강하지만, 정신이 건강해야만 그 열(정신)이 깃들어 사는 몸도 건강함으로 몸과 마음이 서로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심신(心身)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안정을 도모하

기에, 마음이 몸의 주인이고 몸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며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구조로 이루어진 신체기관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달마스님은 “마음을 살피라 다스리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이다(觀心—法總攝諸行)”고 했다.

현대인의 마음은, 해 저문 날 삼거리에서 서성이듯, 엄동설한에 밖에 내놓은 발시킨 아이 마냥 붙일 데 없이 불편·불안해 하며 쫓기듯 험떡이는 갈증으로 목말라 한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던 농경문화에서 산업사회의 발달로 모든 것이 기계화, 도시화, 세분화되면서, 수천년 흙내음 나는 흙집에 등 붙여 살던 정착 주거문화가, 급증하는 인구 팽창으로 인해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데서 개발된 가옥구조인 아파트는 살기에 편리하다는 특성상, 이 땅에서 첫 시공된 지 채 반세기가 못되어 국민 절반 이상이 몸 담아 살고 있는 주거공간이 되었다.



그 모양새는 흡사 차곡차곡 쌓아놓은 성냥갑을 떠올리게 하며 그 발상은 별들이 떼지어 모여 사는 군집독거(群集獨居)식 가옥형태로써, 편리함이 주는 주거공간의 혜택만큼이나 알지 못하게 야기되는 문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 ●
인간은 흙과 함께 살아야 행복

1911년 당시 인구조사 집계에 따르면, 1,200만명을 헤아리던 것이 1백년이 흐른 오늘날, 7,000만여명이 3천리 10만2천km² 면적의 작은 땅 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야 하기에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바다를 매우고 산을 깎아 밀어 없애며, 개발을 해도 땅 넓은 나라보다 훨씬 더 해야 할 것이고, 허공간에 떠 있는 집 아파트를 지어도 더 많이 짓고 높이 올려야 할 것이다.

그러자니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가져오는 필연적 환경문제도 그러하려니와 친환경적인 흙과 나무가 아닌 차디찬 콘크리트, 철근을 섞어 허공간을 가르지는 삭막한 구조공간에서 사물의 실상과 본질을 현혹시키는 객관을 향한 지식·정보만을 탐닉하여 이양을 좇는 학

문과 길들여진 전자기기의 편리함에 젖어 살면서 어떻게 참마음의 발현(發顯)이 되고, 그래서 내면의 지혜가 드러나는 마음의 안정 내지는 참으로 심신이 조화된 평정(平靜)한 평상(平常)의 삶을 이룰 수 있겠는가.

아파트는 대지를 기반으로 한 가옥과는 사뭇 달리, 적어도 구조적으론 안전시설이 된 수직의 절벽 위에서 사는, 제한된 수평공간의 주거형태이다.

필자가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 본 것은 개발 붐이 일던 70년대 중반, 한 지기의 집이었다.

그때 생각하기를 ‘편리한 만큼 불안한 정서에서 오는 대가도 치러야 할 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보았었는데 실제 수년전, 미국의 한 대학연구소의 임상실험 결과, 아파트에 사는 삶이 심신의 장애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밝힌 바 있다.

시대가 변해도 인간은 대지의 동물이다. 허공간에 떠있는 부실한 집에서 제대로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없는 인간의 모성은 대지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1) 선(禪)의 정신세계가 갖는 심오하고 오묘한 불도의 이치.
2) 인연법에 의해 조건 지워진 것은 모두 무상하여 덧없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허망한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일심으로 불도를 닦으려는 결연한 마음.
3) 한번 보고 들은 것은 모두 잊지 않고 빠짐없이 기억하며 암송하는 신통지혜.



장엄한 단청, 위엄과 권위의 상징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금당(金堂)을 비롯한 사찰의 여러 목조 전각(殿閣)들은 여러 가지 색깔로 무늬를 그려 아름답고 화려하고 장엄하게 장식한다. 이를 일러 '단청(丹青)'이라 한다.

단청이란 글자는 '붉은 색[丹]과 푸른 색

[靑]의 대비와 조화'로 풀이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여러 색깔의 안료를 사용하여 건물의 벽과 부재에 색을 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로부터 단청은 목조건축물뿐만 아니라 동굴의 벽화, 고분, 칠기, 공예품, 조

각상, 장신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단청의 목적

단청을 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목재의 갈라짐과 비바람 등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그리고 충해(蟲害)를 방지하는데 두었다. 아울러 건물의 성격에 맞는 장식을 통해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단청을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비바람 등 자연재해에 따른 건물의 훼손을 방지하여 내구성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 2) 절대 왕권의 권위를 상징하고, 종교적 의식을 위한 사찰 등을 장식하여 장엄하게 보이며,
- 3) 목재부에 드러난 웅이나 흠집 등을 감추고 외관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 4) 기념물 성격으로서 전시(展示), 기록(記錄)을 위한 목적이나 건축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단청의 기원

단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해오는 고대 유물이 매우 빈약한 관계로 단청의 기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고대 단청에 관련된 유물과 고문헌 자료를 통해 개략적인 단청의 기원과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된 단청의 흔적은 중국 서한시대 묘의 부장품이었던 가옥형 토기에 적색·백

색·흑색 등을 사용하여 서까래 부리와 주두, 벽 등에 기하형태의 비교적 단순한 문양을 장식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단청의 본격적인 유물은 4세기 중반부터 조영되기 시작한 중국 동황의 불교석굴 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크고 작은 600여개의 석굴 가운데 단청이나 벽화가 채색된 동굴이 무려 469개소나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제254굴에서는 천장과 사방의 벽, 불상과 불단 등에 화려하게 장식된 단청이 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대 단청 유물은 고구려 고국원왕 27년(357년)에 조성된 황해도 안악에 있는 안악 3호분의 벽화고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고분의 벽면과 천장에는 각종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주두의 귀면문(鬼面紋)과 천장의 연화문, 건물의 창방에 해당하는 당초문 등은 당시 수준 높은 단청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여씨춘추(呂氏春秋) 계춘기(季春紀)'에는 중국에서 단청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공사가 백공에게 명하기를 다섯 창고의 양을 살펴 금철, 피혁근, 각치, 우전간, 지교단칠 등 불량한 것이 없도록 하라(命工師令百工審五庫之量金鐵皮革筋角齒羽箭翰脂膠丹漆無或不良)'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지교단칠(脂膠丹漆)'이란 단청의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예기'와 '회남자(淮南子)'에도 인용되었다.

중국 전한시대 회남왕 유안이 저술한 회남



①



②

① 중국 서한시대 기옥형 토기
② 돈황 제254굴

자 태족훈에 '단청과 아교와 칠이 같지 아니 하나 모두 사용되는 것은, 각기 적소에 제 물건이 마땅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丹青膠漆不同而皆用各有所適物各有宜)' 고 하여 '단청(丹青)'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회남자의 내용이 주(周)나라부터 전해지는 여러 기록을 모아 편집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청의 역사 또한 전한시대 이전으

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단청의 역사

신라시대

우리나라에서 단청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 술거조(率居條)'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던 술거가 황룡사 벽에 노송을 그렸는데, 왕왕 새들이 날아와

서 앉으려고 허둥대다가 떨어지곤 하였다. 후에 채색이 낡고 바래자 절의 스님이 단청으로 보수하였는데 그만 새들이 날아들지 않았다'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 옥사조(屋舍條)'에 '진골은 금은유석오채(金銀鑰石五彩)로서 장식할 수 없고 6두품은 금은유석백랍오채(金銀鑰石白蠟五彩)로서 장식하지 못하며, 5두품은 금은유석오채로서 꾸미지 못하고, 4두품 이하 백성들은 금은유석동랍(金銀鑰石銅蠟)으로 장식할 수 없다'고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오채(五彩)는 단청의 기본재료를 가리키는 말이며, 성골, 즉 왕족에 한하여 단청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삼국유사 탑상편(塔像編) 황룡사구층탑'에는 탑을 세운 것을 경탄하는 찬문에 나오는 '금벽(金碧)'이란 단어는 구층 목탑의 화려한 단청을 뜻하는 것으로 이후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서 최상급의 단청을 수식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 단청의 실상(實狀)은 '선화봉사고려도경',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송나라 서경(徐兢)이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궁궐 전각의 난간에는 붉은 옷칠을 하고 동화(銅花)로서 장식하였고 단청이 장엄하고 화려하였다'고 고려의 궁전을 친견한 소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고려사 제18권 의종(毅宗)'에는 '왕이 대궐 동북쪽에 정각을 세우고 <충허각>이

란 현관을 걸었는데 금벽단청이 선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금벽단청(金碧丹青)'이란 앞에서 살펴본 삼국유사 황룡사 구층탑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금이 사용된 화려한 최상급의 단청을 말한다.

고려사 유승단편에는 '몽고대군이 경기지방 가까이 침입했을 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길 일을 의논하였는데, 거리에는 단청으로 채색한 큰집들이 줄을 이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를 볼 때 고려시대에 단청이 일반에까지 널리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종 12년(1411)부터 철종 9년(1857)까지 무려 159건의 많은 단청과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다. 주로 단청이란 말이 사



인악 3호본 천정 연화문



고구려 벽화의 각종 연화문 단청

용되고 있으나 진채(眞彩), 금벽(金碧), 단화, 채화(彩畵) 등의 용어도 드물게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으로 인하여 사찰 단청은 줄어들었지만, 궁궐과 왕실 원당(願堂)에 대한 불사(佛事) 차원의 단청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의 단청에 관한 기록 가운데 상당수가 왕실의 원당 사찰에 값비싼 진채 단청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신하들의 상소로서 궁궐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진채 사용을 금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조선조 초기부터 국법으로는 사찰과 사가의 단청이 금지되었지만, 왕족이나 일부 상

류층의 저택에는 단청 치장이 그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찰 단청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유생들조차 서원은 단청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음이 조선왕조실록과 증보문헌비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금은주채(金銀珠彩)는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혹 금으로 부처를 도금하고, 혹 진채(眞彩)를 써서 단청을 한다는 것은 모두 옳지 못하니, 너희들이 마땅히 육전(六典)을 상고하여 금하는 법을 거듭 밝혀서 다 영(令)으로 드러나게 하라’ 고 하였고, 또 중종실록에

‘김안로가 거쳐하는 집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데 강정(江亭)은 신이 보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서울의 집은 그 단청과 화채가 신하로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고, 또 영조실록에 ‘병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안동에서 서원을 허문 일로 인해 상소하여, 조중직(趙重稷)·이진(李璫)·홍계유(洪啓裕)의 소장에 대변(對辯)하고, 이어 서원의 폐단에 관하여 극력 진달하기를, 벼슬이 경상(卿相)에 이르고 현달한 자손이 있으면, 부호(富豪)로서 신역(身役)을 기피하는 무리들이 사우를 세우자는 의논을 수창하고, 본가의 자제들은 영곤과 수재(守宰)에게 간청하여 크게 서원을 창건하여 단청(丹青)을 찬란하게 꾸밈니다’ 고 하였다.

또한 증보문헌비고에 ‘임진왜란 병화 이전의 서울의 재상집들은 단청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이목에 익숙하였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

조선 전기를 지나면서 궁궐과 사찰의 단청은 점차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물론 조선의 유교적인 검약(儉約)도 이에 영향을 미쳤지만 당시 금·은과 맞바꿀 정도로 비싼 진채 안료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었다는 점도 원인 중의 하나였다.

전통과 현실의 딜레마

2008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의 승례문이 방화로 전소되었다. 그 뒤 승례문의 복구는 전통기법에 의해 추진되었다. 기와도 전통기법에 의해 제작하였고, 목재를 치목하는 과정에 있어 최대한 전통 도



구와 기법을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단청 역시 전통기법에 의한 복구를 추진했으나 우리나라 전통 안료 기법은 이미 40여 년 전에 그 맥이 단절되었고 지금은 화학 안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 안료 기법이 단절된 가장 큰 이유는 화학 안료에 비해 턱없이 비싼 가격 때문이었다.

전통기법에 의한 승례문 복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으나 단청의 경우 이미 40여년전에 그 맥이 단절되었고 5년이란 공사기간은 전통 안료 기법을 연구·복원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결국은 승례문 복구시 단청은 전통 안료 기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화학 안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으뜸 사찰 계룡산 갑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계룡산에 있는 갑사(甲寺)는 우리나라 안의 으뜸가는 사찰이라는 뜻이다. 약사여래의 영험도량으로 계룡산 연천봉에서 서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갑사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증생을 굿어 살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갑사는 『동국여지승람』에 ‘계룡갑사(鷄龍岬寺)’로 기록되어 있고 갑사(岬寺), 갑사사(岬士寺), 계룡사(鷄龍寺)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의 사명인 ‘甲寺’는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사찰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갑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백제 구이신왕 원년(420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는 설이다. 위덕왕 3년(556년)에 혜명대사가 천불전 및 진광명전, 대광명전을 증건하였고 후에 의상대사는 당우 1천여칸을 중수하고 화엄대학지소를 창건하면서 갑사는 신라 화엄종 10대 사찰의 하나로 번창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스님들이 왜군에 대항하기 위한 승병궐기의 거점이 되었다. 당시 갑사 청련암에 주석하시던 영규대사는 왜병이 북상하자 800여 승려들과 함께, 충청도 의병장 조현 선생의 의병과 연합하여 청주성을 수복하고 충청도를 왜군으로부터 지켜내는 큰 공을 세웠으나 금산전투에서 800여 승병과 함께 장렬히 순절하셨다. 영조 14년(1738년)에 건립된 표충원(지방 문화재 제52호)은 임진란의 대표적 승병장인 서산, 사명, 영규대사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갑사는 선조 30년(1597년) 정유재란 때 침입한 왜구들에 의하여 한꺼번에 소실되어 폐허로 방치되다가 선조 37년(1604년) 대웅전과 진해당을 시작으로 효종 5년인 1654년에 사우(寺宇)를 전면적으로 개축·중수하면서

옛 모습을 되찾아갔다.

이어 고종 12년인 1875년에 다시 대웅전과 진해당이 중수되고 광무 3년인 1899년에 적묵당이 신축되었다. 최근에는 사천왕문을 새로 짓고 범종루를 신축하는 등 지금까지도 불사가 이어지고 있다.

갑사에는 유명한 명소가 많다. 창건신화를 지닌 천진보탑, 증건설화를 안고 있는 공우탑, 호국도량을 상징하는 표충원 등이다.

천진보탑은 절경이 아름다운 계룡산 자연석실에 부처님진신사리를 봉안한 탑이다. 문화재 자료 제68호인 천진보탑은 계룡산 신흥암 위에 봉우리처럼 우뚝 솟아있는 자연바위로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탑인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적하고 400년이 지나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왕이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치고자 큰 서원을 세우고 사리보탑에 있던 부처님의 사리를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사천왕들로 하여금 마흔여덟 방향에 봉안케 하였다. 이때 북쪽을 관장하던 다문천왕(비사문천왕)이 동방 남섬부주 가운데에서도 명산인 계룡산의 자연 석벽에 담아 두도록 하였고, 뒷날 아도화상이 이를 발견하여 ‘천진보탑(天真寶塔)’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천진보탑은 갑사가 부처님의 전법도량이며, 계룡산은 불법이 살아 움직이는 산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중요한 증표인 셈이다.

갑사에 오르다 보면 중장리에 3층 석탑이 하나 있다. ‘공우탑’이다. 조성배경은 이러



① 보물 제257호 부도탑
② 감사 일주문



하다. 약 4백 년 전, 이 땅에 침입한 왜구들의 불길이 천년 고찰 감사에까지 옮겨와 1천여 칸의 화엄대찰을 일시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왜란이 평정된 후 소실된 사찰을 증진하기 위한 불사가 시작되었다.

이때 소 한마리가 감사에 찾아와 불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스스로 끌고 오는 등 불사에 큰 힘을 보태어 주었는데, 그만 불사가 회향하는 날, 소는 지쳐 쓰러졌다고 한다. 이에 스님들은 불사를 도운 소의 호법정신을 기리기 위해 탑을 세웠는데 그 탑이 바로 공우탑이다.

또 보장각에 있는 월인석보판목과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철당간 지주, 삼국시대에 조성된 감사부도, 석조약사여래입상 그리고 강

당에 걸린 감사편역도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보물 제582호인 월인석보판목은 『월인석보』를 새겨 책으로 찍어내던 판각으로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 중 유일한 판목이다. 『월인석보』는 본래 57매 233장으로 모두 24권이었다고 하는데, 감사에는 현재 21권 46매가 전해 지고 있다.

이 판목은 선조 2년(1569년) 충청도 한산에 사는 백개만(白介萬)이라는 사람이 시주하여 활자를 새기고, 충남 논산 불명산 쌍계사에 보관하였다가 현재 감사에 소장되어 있다. 계수나무에 돈을 새김으로 새겼다.

감사 동남쪽 기슭에 있는 철당간 및 지주는 보물 제256호이다. 이 당간은 통일신라시대의 당간으로는 유일한 것이다.

가람배치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중심 영역과 그 서남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대적전 영역, 그리고 북쪽의 표충원과 팔상전 영역이다. 이 세 영역은 계곡에 의해 나누어진다. 감사에는 두 개의 계곡이 흐른다. 동남쪽의 큰 계곡과 북쪽의 작은 계곡이 그것이다.

두 계곡은 중심 영역 서북쪽에서 합류하게 된다. 중심 영역은 두 계곡에 의해 감싸인 형국을 이루고 있다. 서남쪽 계곡에는 대적전이 위치해 있고, 북쪽 계곡을 건너면 표충원과 팔상전이 있다. 현재 감사의 중심 영역은 정유재란 후에 형성된 것이고 원래 중심 영역은 대적전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사 주변에는 절경들이 많다. 특히 주차

장에서 시작되는 오리숲, 감사의 봄을 전하는 황매화단지, 대적전에 있는 대나무 숲, 가을단풍을 상징하는 감사구곡이 있다. 추감사로 상징하는 가을 단풍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가 절경이라고 한다.

계룡산 감사 가는 길

승용차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남공주 IC에서 내린다. 40번 국도와 23번 국도를 이용해 공주 방향으로 가다 계룡면 소재지에서 우회전해 계룡저수지를 낀 도로를 달리면 감사가 나온다. 또는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호남고속도로 유성IC에서 내려 32번 국도를 타고 가면 된다.

입춘과 대보름, 그리고 삼재풀이



입춘(立春)은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이다. 올해의 입춘은 양력으로 2월 4일이다. 태양의 황경이 315도일 때이며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다.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지만 아직 추위가 강하다.

입춘 전날이 절분(節分)인데 이것은 철이 갈리는 날이라는 뜻이다. 이 날 밤을 해넘이라고 부르고, 콩을 방이나 문에 뿌려서 귀신을 쫓고 새해를 맞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입춘을 마치 연초(年初)처럼 본다. 입춘 15일간을 5일씩 3후(候)로 갈라서, 첫 번째 5일은 동풍이 불어서 언 땅을 녹이고, 다음은 동면하던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지막 5일은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닌다고 하였다.

지방에 따라 입춘날이나 대보름 전 날에 베푸는 '아홉 차리'라는 민속이 있다. 이날은 각자 소임에 따라 아홉 번씩 부지런하게 일을 되풀이하면 한 해 동안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받는 줄 알았다. 글방에 다니는 아이면 천자문(天字文)을 아홉 번 읽고 나무꾼은 아홉 짐의 나무를 하며 노인이면 아홉 발의 새끼를 낳는다. 계집아이들은 나물 아

홉 바꾸니를, 아낙들은 빨래 아홉 가지를, 길쌈을 해도 아홉 바디를 삼고 실꾸리를 감더라도 아홉 꾸리를 감는다. 심지어는 밥을 먹어도 아홉 번, 매를 맞더라도 아홉 번을 맞았다. 굳이 아홉 번이라 함은 많이 했다는 의미이며 우리 조상들의 숫자 개념상 최고의 양수(陽數)이기 때문이다. 아홉 차리는 가난하지만 근면하고 끈기 있게 살라는 교훈적인 세시풍습이다.

또 적선공덕행(積善功德行)이라 하여 입춘 날이나 대보름날 전야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일을 꼭 해야 그해의 액을 면한다는 적선공덕의 복지민속도 있었다. 이를테면 밤중에 몰래 냇물에 가 사람들이 건너다닐 징검다리를 놓는다든지, 가파른 고갯길을 깎아 놓는다든지, 다리 밑 동냥음막 앞에 밥 한 술 지어 갖다 놓는다든지, 행려병자가 누워있는 원(院) 문전에 약탕을 끓여 몰래 놓고 온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또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후여서 입춘방이나 첩(帖)을 붙이는 등 여러 행사가 있다. 입춘시가 들 때 대문, 중문, 곳간문, 방문

이나 대들보에 '春到門前增富貴(춘도문전증부귀)', '春光先到古人家(춘광선도고인가)', '立春大吉(입춘대길)'이나 '立春大吉 建陽多慶(입춘대길 건양다경)', '國泰民安 家給人足(국태민안 가급인족)' 등 입춘방을 써 붙여 복을 빌기도 한다.

특히 입춘 전후에 받아 둔 빗물을 입춘수(立春水)라고 하는데 이 물로 술을 빚어 마시면 아들 낳고 싶은 서방님의 기운을 왕성하게 해준다고 했다. 또 입춘 때는 농사의 풍년을 비는 선농제(先農祭)를 지내기도 했다. 입춘 후 첫 해일(亥日)에 지내는 선농제란 서울 동대문 밖에 있는 제기동(祭基洞)과 전농동(典農洞)에서 베풀어졌던 제사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농사를 다스리는 신(神)인 신농(神農)에게 풍년을 비는 제사는 신라 때부터 있어왔다고 한다. 선농제와 함께 입하(立夏) 후 첫 해일에는 중농제(中農祭), 입추(立秋) 후 첫 해일에는 후농제(後農祭) 등 모두 세 차례의 제사를 지냈는데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동대문 밖에 선농단을 짓고 선농제만을 지내왔던 것이다.

또 입춘날에 먹는 시절음식으로 오신채(五辛菜)라는 것이 있다. 다섯 가지 매캐한 모든 나물이란 뜻인데 시대에 따라, 지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파, 마늘, 자충이, 달래, 평지, 부추 그리고 미나리의 새로 돌아난 싹이나 새순 가운데 다섯 가지 나물 즉, 노랑고 붉고 파랗고 검고 하얀색의 나물을 골라 무쳤다.

오신채는 노란색의 싹을 한복판에 무쳐놓

고 동서남북에 청, 적, 흑, 백의 사방색(四方色)의 나물을 배치한다. 이것은 임금을 중심으로 하여 사색당쟁을 초월하라는 정치화합의 의미가 부여돼 있었던 것이다. 또 일반 백성들도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고 인, 예, 신, 의, 지를 증진하기 위해 오신채를 먹었다고 한다. 또 오신채는 세상 살아가는 데 느끼는 다섯 가지 괴로움, 맵고 쓰고 쓰는 등 인생오고(人生五苦)를 오신채를 먹음으로써 참으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한다.

또 이맘때면 절에는 가정의 복덕을 기리는 입춘 삼재기도를 올린다. 불교에서는 삼재를 수재와 태풍, 화재의 세 가지의 재난을 부르기도 하고 또 삼재를 소삼재(小三災)와 대삼재(大三災)로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민속적인 입장에서 삼재는 사람의 일생 중에서 찾아온다는 불길한 운세를 말한다. 이는 중국의 오행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써 소위 십이지(十二支)를 셋씩 묶어 3년 동안 나쁜 운이 돌아올 때는 삼재에 들었다고 말한다. 즉 사람의 운이 각 3년씩 12년을 주기로 바뀌어 인생에 아주 좋은 운과 아주 나쁜 운이 12년을 주기로 한 번씩 오게 된다. 이 중 나쁜 시기에 접어드는 것을 흔히들 말하는 삼재(三災)라 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하는 종교인 불교에서는 삼재의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항상 착하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삼재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법왕사 소식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법왕사에서는 오는 2월 14일 갑오년 정월 대보름에 법왕사 광장에서 달집태우기 및 소원성취 기도법회를 병행합니다.

갑오년 한해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을 편지지에 적어 성취를 기원하고 액난소멸을 발원하는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월 16일 화엄성중 천일기도 입재



법왕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 15일(음력 12월 15일) 250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화엄성중 천일기도를 입재하였습니다. 이번 천일기도는 2016년 10월 10일(음력 9월 10일) 회향하는데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오후 2시에 화엄경 약천계 49독 기도를 병행하고, 천일법회 때마다 천주를 만드는데 30알의 염주를 드립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불자들에게서도 언제든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층 대적광전 천장공사 진행중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천장공사가 착공 13년만인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공정을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설물 위로 드높은 천장에는 우물반자를 완성해서 조만간 그 웅장하고 여법한 모습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공사는 1월 중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1월 16일, 제26회 백고좌법회 입재



법왕사 제26회 백고좌법회가 1월 16일 남원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4월 25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됩니다.

2014년도에는 1년에 3회의 백고좌법회를 병행할 계획인데 27회 백고좌법회는 5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28회 백고좌법회는 9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병행합니다.

특히 이번 백고좌법회는 천일기도와 함께 입재하여 갑오년 한해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여법하고 정성이

법왕사 소식

가득한 기도법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회 중간에도 불명 보살계 수지법회, 삼사순례법회, 방생법회를 비롯해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열릴 예정이니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정초 7일 기도 입재

법왕사에서는 갑오년 정초 신중 7일 기도를 오는 1월 31일 설날부터 7일간 병행합니다. 새해를 여법한 신중기도로 맞이하여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축원문은 기도 입재 전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고 기도 동참금은 성의껏 보내시면 됩니다. 문의는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4층 대법당 단청공사 시작

복지관 4층 대적광전 단청공사가 1월 23일부터 시작하여 2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이번 단청공사가 완료되면 제26회 백고좌법회 중반 이후의 법회는 4층 대적광전에서 병행하게 됩니다. 조속한 완공을 위해 7명의 전문가를 투입,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4학년도 불교대학 초, 중, 고급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초급 주야간반을 비롯하여 불교에 입문하여 더욱 깊은 교리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해 주야간으로 중급, 고급반, 경전반을 개설합니다.

갑오년 설날 합동차례 접수

법왕사에서는 갑오년 음력 설을 맞이하여 합동차례를 지내 드립니다. 법왕사에 평생위패를 봉안하신 불자들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가정에서 차례를 지낼 수 없는 분들은 법왕사에 신청하시면 정성을 다해

불교식으로 차례를 올려 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삼천포에서 갑오년 정초 바다 방생법회 병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2월 9일 삼천포 앞바다에서 방생법회를 병행합니다. 오전 8시 법왕사 주차장에서 출발, 삼천포 앞바다에서 방생법회를 하고 항일암을 참배합니다. 방생물 바다 거북은 각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약천사 2박3일 순례법회 병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 동안 제주도 약천사를 비롯해 불교성지를 순례하고 봄을 맞은 제주관광도 겸하는 순례법회를 병행합니다. 이번 법회의 일정은 1박은 약천사에서, 1박은 일반 호텔에서 하며 약천사와 관음사 등 제주도의 대표적인 도량을 참배합니다. 또한 일반 관광지도 둘러보고 제주도 특별 민속요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금은 30만원이며 300명 선착순 접수합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이현영 김정희 정해조 강분자 서정호
강영진 정인숙 박재만 박남석 방춘배
이재우 김석유 오복희 배은희 최정훈
이정환 차동영 정정만 주순영

법왕사의 새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
덕이 넘치는 신행생활 하시기 기원합니다.

사보 도움 주신 분

우병태 이범일 김종환
명동 미한의원 김종권 원장 100부

축원 올리신 분

- 수능기도 올리신 분
이화진 한우주
백일기도 올리신 분
최윤재 심규암 묘장엄(임상덕)
일년기도 올리신 분
심규암 최영곤 권혁일 심보현 이유태
조기수 이희돈 오창혁 홍승규 박명근
배해동
일년 가족기도 올리신 분
천지화 조기수
제26회 백고좌 백일기도 올리신 분
박무착심 정연국 양문갑 구정대 권상태
배해동 이대각 김호연 전재술 정국영
갑오년 1년 사업기도 올리신 분
선재수학학원 남경정공
공양 올리신 분
꽃공양 올리신 분
이화꽃집
떡공양 올리신 분
조인태(직접) 김하균
김지열(백설기 3만원 직접) 전숙환 김병찬
심영호 김정윤(직접) 사공순옥 전숙환
신민호 이세정(참쌀떡 2되 직접)

심규암 백보현행 김하균
김성호 관음회 부창떡집(2되 직접) 반야화
대해궁 최재훈(직접) 류주연

- 생필품공양 올리신 분
김재학(천연비누)
대중공양 올리신 분
안효창 황미선(채소) 조동희(배추, 무)
식품 보시하신 분
동양식품(돈까스 1box, 야채고기전 1box, 동양사골
곰탕 4개, 동양생선까스 1box, 당면 2box)
공양미 올리신 분(20kg)
박종연 김운정 김천학(참쌀 20kg) 김주현
이세정 정광호 남기석 이정희 정국영
조미숙 정광춘 박문수성 최은진
과일공양 올리신 분
조동선(배 1box) 김옥희
강유미(배, 사과 직접) 류주연
신정순(곶감) 이경란(밀감 1box)
법공양 올리신 분
곽중란

해오름요양원 후원 하신 분

김인숙 이정자 김재숙 강인숙 권명진
신세호 곽순호 김현택 마용주 박순남
김외환 박영숙 이승미 박미경 김대현
이용욱 정미숙

갑오년 법당(가족)등 올리신 분

- 66 유종건 67 강운섭 68 최재용 69 이규설
70 김대곤 71 김종열 72 우종원 73 김광숙
74 김창월 75 한순복 76 장재달 77 심규암
78 박우홍 79 노동근 80 최영철 81 이우열
82 신정순 83 최상홍 84 조현문 85 이정란
86 노기일 87 정광진 88 최임한 89 강동화
90 공기연 91 이상열 92 이창식 93 이영석
94 전정광 95 신종수 96 류현필 97 류홍열
98 김종태 99 이세정 100 신구자 101 김반야성
102 신종호 103 박영승 104 이범일 105 배해동
106 민병도 107 박진근 108 홍승규 109 박종민

110 박종철 111 신광옥 112 이선희 113 곽은심
114 도대륙 115 이용욱 116 권요규 117 전병혁
118 여축동

대등 올리신 분

신암수산 정일수산 정일농원

단창등 올리신 분

남경정공

천일기도 올리신 분

김기수 박정희 박경영 박무착심 신격기
최효영 이세정 강숙영 한상섭 김옥희
이규영 윤성진 장금학 자운스님 김철선
이재학 신천식 이경란 권무길 박종연
김유창 이상태 김상한 조준승 최영곤
박동근 김상수 주정석 전숙환 이상열
정광춘 심보현 손정열 정현균 조영부
정효교 정정교 문국연 신명균 이길우
김임태 조복래 강상우 이재복 강상훈
이종량 장재달 이대각 손점순 김외환
이희돈 이현영 오창혁 이정례 권중훈
장승환 이정철 육정혜 김병대 이정상
김운구 백상현 조주현 김병찬 강분자
심재용 신광옥 박종민 박종철 조용철
이순일 이원석 김춘자 정근순 허상현
신민호 심규암 이희동 이희로 윤치달
강봉호 손대천 하창호 주순영 최정훈
구승우 박해진 최규철 이선희 유철일
송노현

* 천일기도는 계속되며,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불사 올리신 분

- 원불 올리신 분
亡오계식
삼존불 모신 분
신장회 김옥희

왕생극락하옵소서

◆ 최대일 영가의 초제가 1월 4일에 있었습니다.

- ◆ 손태근 영가의 초제가 1월 5일에 있었습니다.
◆ 김원희 영가의 초제가 1월 7일에 있었습니다.
◆ 김창범 영가의 초제가 1월 7일에 있었습니다.
◆ 박재상 영가의 기제사가 1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오계식 영가의 막제가 1월 18일에 있었습니다.
◆ 이윤석 영가의 막제가 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조철오 영가의 막제가 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법왕사 홈페이지
http://www.bubwangsa.or.kr
법왕사 페이스북이 개설되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
p?id=100007547498996#/profile.php
?id=100007547498996
법왕사 내방인사
BBS 이채원 사장
BBS 양봉모 보도국장
명동 미한의원 김종권 원장

해오름 소식

해오름요양원에서는 법왕사와 인연 있는 불자 어르신들이 입소하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드릴 예정이오니 주위에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봉사단

새해에도 변함없이 녹색환경봉사단의 봉사자들께서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로 지난해보다 더 긴 시간을 할애하여 청소, 이마용, 레크리에이션 등등 다양한 재밌거리로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문기관 강사 초빙

대구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노인 인권과 권익침해 문제 등에 대한 의식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사랑공연단

참사랑공연단의 흥겨운 공연에 맞춰 1등 춤사위 실력을 발휘하시는 어르신께는 주지스님이 마련하신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 한층 더 무르익은 공연단의 신나는 공연으로 스트레스가 싹 달아나는 듯합니다.



해오름 게시판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2월)

◎ 수입내역

박용관 1만원	여택동 5천원	박원대 1만5천원
김영희 5천원	이종희 5천원	박태숙 5천원
정순옥 5천원	안경순 1만원	김유진 1만원
김무용 5천원	장인숙 5천원	유명옥 1만원
신희식 1만원	권오성 1만원	류윤만 1만원
조창신 1만원	강심규 5천원	김기덕 2만원
황준원 5천원	박태숙 5천원	인명희 1만원
최창숙 5천원	박창목 5천원	이임숙 2만원
주성순 5천원	이현우 1만원	허유미 5천원
조정자 5천원	이은주 1만원	황지영 5천원
장성규 5천원	문정애 2만원	장호주 5천원
김미자 1만원	여축동 2만원	남기웅 1만원
도화순 5천원	류윤만 1만원	강유미 5천원
장재혁 5천원	노귀자 5천원	이정희 1만원
양봉훈 1만원	이정옥 1만원	이전희 1만5천원
이재봉 5천원	정무시 1만원	황미선 2만원
김정규 5천원	김정임 1만원	장우성 1만원
최상옥 5천원	권숙자 1만원	김우영 1만원
엄세비 1만원	현영희 1만원	김경환 1만원
최상옥 5천원	강영도 2만원	임승현 1만원
한희록 1만원	이정훈 1만원	강숙영 1만원
권영희 1만원	심규암 5천원	박귀분 1만원
박병준 1만원	김정자 5천원	권명원 1만원
황상옥 2만원	김기수 2만원	김원형 3만원
최은순 1만원	구정대 2만원	김예분 1만원
김경호 1만원	김순태 1만원	박순영 5천원
백옥수 5천원	김민주 1만원	임익균 1만원
박연경 1만원	손말두 5천원	곽순복 2만원
진봉희 1만원	박재후 1만원	김진성 1만원
김주희 5천원	정선옥 5천원	심준순 5천원
홍유식 5천원	박치민 5천원	한구매 5천원
신임선 5천원	시명스님 5천원	정연이 5천원
김승환 5천원	성승길 1만원	이인순 5천원
박정목 1만원	김형택 2만원	김봉숙 5천원
이호동 5천원	문정자 1만원	오남옥 5천원
우표정사 1만원	정경석 2만원	이점례 1만원
최경순 1만원	김영일 1만원	이병희 1만원
성외련 2만원	정옥선 1만원	김순란 3만원
고연숙 1만원	윤광숙 5천원	신구자 5천원
정할수 3만원	고선영 1만원	조영석 1만원
임상덕 1만원	박명숙 1만원	박학순 1만원

김임태 5천원	최복례 1만원	김정희 1만원
정시영 1만원	권봉자 3만원	윤순희 1만원
권보형 2만원	강선옥 1만원	김미옥 2만원
홍세림 1만원	오금옥 1만원	김수라 1만원
조규인 1만원	박대희 5천원	이은주 1만원
사공관 1만원	이남희 1만원	최분규 1만원
채옥연 5천원	안상준 2만원	양나영 5천원
배수현 2만원	강소남 5천원	신혜경 5천원
신돈식 1만원	조용수 1만원	권계화 1만원
현인숙 1만원	김정순 3만원	이은희 5천원
노수정 1만원	윤진경 5만9천원	권영희 1만원

합계 1,614,00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66,000원
- 문자통지 수수료	2,000원
- 부식재료구입	366,360원
- 나들이 외식비	100,000원
- 약품구입 및 의료비	190,980원
- 기저귀 구입	1,847,000원
- LPG가스 구입	800,000원
- 프린터기 대여료	100,000원
- 문구류 구입	98,650원
- 우편물 발송료	54,970원
- 침대손잡이교체	99,000원
- 요양원보수용품	44,000원

12월 총 사용내역 3,768,96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물품 보내신 분

- 범혜순 어르신 보호자 : 김장김치 1통, 커피 1box
-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10개, 비타500 1box
- 남분한 어르신 보호자 : 두유 1box, 과일주스 10병
- 녹색환경봉사단 : 비타500 1box
- 정금화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 권민자 어르신 보호자 : 커피믹스 220개, 굴 1봉지

- 진병호 어르신 보호자 : 순대 2팩, 현금 5만원
- 박수연 어르신 보호자 : 현금 5만원
- 박말분 어르신 보호자 : 커피믹스 100개
- 효산병원장례식장 : 떡케익 1box
- 한울식 어르신 보호자 : 요구르트 20개
- 차수학 어르신 보호자 : 현금 5만원
- 백복순 어르신 보호자 : 피자판
- 장태순 어르신 보호자 : 꿀홍삼드링크 1box
- 권혁만 : 두유 1box
- 장어와미꾸라지추어탕 : 40인분
- 김민지 : 고기 5만원 상당

※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물품과 후원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활동 하신 분

- 개인봉사자 : 여인숙, 류한순, 류금자
- 녹색봉사단 30명(매월 3째주)
- 참사랑공연단 7명(매월 1회)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 신규 입소 어르신 : 서진환
- 요양보호사 : 권명진, 강인숙, 김재숙
- 간호담당 : 이승미

요양원 직원 동향

- 1월 10일 연말정산교육 참석 : 강선옥 사무국장
- 1월 16일 수가청구관련 교육 참석 : 임승현 사회복지사
- 1월 21일 노인학대예방교육 : 전 직원
- 1월 27일 VMS인증요원 보수교육 참석 : 강선옥 사무국장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자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제2해오름요양원·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찬으신 어르신 25분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분들은 많은데 복지관 내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차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법왕사는 제2해오름요양원과 병원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동참하고 계신 분

신구자	1명	황부원	1명
고진웅	1명	조춘권	1명

-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림)
-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

- 🌸 **다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강사 : 김정규 선생님
- 🌸 **사찰요리**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강사 : 비구니 스님
- 🌸 **합창단**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사 : 정무시 지휘자 선생님
- 🌸 **사물놀이**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강사 : 이정화 선생님
- 🌸 **서각**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강사 : 신임선 선생님

갑오년 법당 일년등 불사

법왕사에서서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무명을 밝히고 복덕을 기원하는 법당 일년 등 및 가족등, 사업등, 영가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연등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찬탄하고 중생의 무명업장을 소멸하는 공덕이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은 모두 수희동참하시고 주위에도 많이 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등 10만원 이상
- 영가등 5만원 이상
- 사업등 20만원 이상
- 계좌번호

농협 150101-51-00498 법왕사
대구은행 047-050003968-6 법왕사



정월 대보름 삼재기도 회향 달집 태우기

법왕사에서 오는 2월 14일 갑오년 정월 대보름에 법왕사 광장에서 달집태우기 및 소원성취 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갑오년 한해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을 편지지에 적어 성취를 기원하고 액난소멸을 발원하는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월 14일 오후 6시
- 장 소 | 법왕사 종합복지관 광장
- 해당띠 | 돼지, 양, 토끼
- 준비물 | 쌀 3되 3흙, 나이수만큼 동전, 속옷
- 동참금 | 1인 3만원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 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신행단체 모임안내

- | | | | |
|----------|---------------------|-------|------------------|
| 신 장 회 |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 인 등 회 |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
| 산신기도회 | 매월(음) 16일 오후 4시 | 지 장 회 |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
| 관 음 회 |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 합 창 단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 선우회(참선반) |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 | |